



대동길놀이



춘향극대전 대상 서의철



뮤지컬 춘향

# 남원 제95회 춘향제 성황리 개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로 춘향선발대회·춘향제향·대동길놀이·공연 등 다채롭게 열려

남원시 관광위원회와 요천 일원에서 지난달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제95회 춘향제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춘향제향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대한민국극악

대전, 시립극악단의 전통국악공연, 청소년 장기자랑, 이집트 민속공연단 등 외국무용단의 이색공연, 어린이날 특집, 광양시립극악단 등 전국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공연, 초청가수와 지방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등 많은 볼거리와 감상거리를 보여주었다. 특히 바가지요금 근절, 많은 차량수용 주차장, 차박지 제공, 질서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와 안전한 축제를 위한 남원시의 노력이

돌보인 축제였다. 특히 백종원 먹자거리와 남원농특산물 축제장 및 향토음식 코너, 아이를 위한 수유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축제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와 제천위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며, “춘향제 100년을 위한 여정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예술인과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 참여 예술인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16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예술인과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이하 예술로 이음)’에 함께할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이음’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확장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예술을 매개로 조직의 문화와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art2024@hanmail.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으로, 총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며, 참여 예술인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선발된 참여 예술인은 앞서 선정된 8명의 리더예술인과 기업·기관 8곳과 함께 △사회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기관 조직문화 개선, △지역 환경·생태 문제 해결, △전시 기획(실행), △예술교육 기획(실행)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다채로운 협업사업 사례 발굴을 위해 ‘최초 수혜자(신규 참여 예술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사업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책임멘토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기자

2025 예술인과견지원사업 예술로 이음 참여 예술인 모집

2025.5.02(금) - 05.16(금) 14:00~18:00

이름: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요 경력: [ ]

지원 분야: [ ]

신청 방법: [ ]

문의처: [ ]

##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재오픈 기념 이벤트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재오픈을 기념해 전주한옥마을 동학혁명기념관 인근에서 ‘광 없는 플랫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4~5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르면 트래블라운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hopping\_travel\_lounge\_) 팔로우 또는 블로그 이웃 추가 후,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면 플랫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경품은 1일 최대 200명에게 한복 체험 무료 티켓, 14개 시·군 특산물, 전북 맛집 5천 원 할인권(풍년제과 초코파이 등 구입 가능) 등이다. 재단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품을 트래

블라운지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객사 인근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방문을 유도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라운지를 직접 방문해 경품을 수령한 이용객에게는 소정의 추가 경품도 제공했다. 한편, 트래블라운지는 도내 쇼핑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자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기자

##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감독

무주산골영화제, 한국 영화감독 특집 프로그램 첫 번째 주자 선정

푸른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6월 6~8일)가 동시대 한국 영화의 최전선에 있는 상업영화감독 1인을 선정해 관객들에게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디렉터즈 포커스’를 새롭게 시작, 그 첫 번째 주자로 엄태화 감독을 선정해 기대를 모은다.



알리기 시작했다. 2013년 첫 장편영화 <임투기>를 통해 독특한 연출 감각과 신선한 에너지가 호평을 얻었으며 2016년에는 장편영화 <가려진 시간>으로 탁월한 비주연리스트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2023년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배우가 출연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거머쥐며 한국 영화의 희망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선보이기 위해 신실한 한국 영화감독 특집 프로그램 ‘디렉터즈 포커스’를 공개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한국 영화감독 특집 첫 번째 신규 프로그램으로 먼저 공개되었던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이 한국 영화미학을 입체적으로 즐길 시간을 마련한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디렉터즈 포커스>는 스크린과 OTT를 넘나들며 한국 영화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감독을 선정해 그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상업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디렉터즈 포커스>의 첫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으로 선정된 엄태화 감독은 단편영화 <숲>(2012)으로 제11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이번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에서는 감독의 초기 단편작 <선인장>(2003), <유숙자>(2010), <신봉리 우리집: 흔한 이야기>(2010), <숲> 등을 포함해 최근 가수 아이유(IU)와 함께 작업한 뮤직비디오 <Love Wins All>(2024)까지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토크시네마를 진행한다. 또한 무주드나 무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야외 상영과 야외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엄태화 감독의 작품 세계를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함께 또 하나의 감독 특집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신설되는 <넥스트 시네아스트>, <디렉터즈 포커스>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한국 영화감독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관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춘향 진 김도연 양을 비롯한 수상자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춘향 진 김도연 양을 비롯한 수상자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부터 국제 대회로 바뀌어 치러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이 지원하였고, 1, 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기존 춘향진, 신, 미, 정, 숙, 현 외에 세계에 춘향을 알릴 글로벌 앰버서더 2명과 제95회 춘향제 공식 후원사인 코믹스 특별상을 새롭게 추가했다.

춘향 수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국내외 문화, 관광, 축제, 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남원을 홍보할 예정이며, 진으로 선발된 김도연 양은 이날 위촉식에서 “춘향의 정신과 아름다운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나타냈다. 최경식 시장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표 민중문화인 춘향의 열을 항상 기억해 주길 바라며,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들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단간을 들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